

최근의 延支給 수입동향

- 한국은행 국제수지과 -

I. 머리말

延支給輸入은 수입업자가 선적서류 인수후 일정기간 경과후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수입방식으로 주로 原資材수입에 많이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延支給수입의 비중은 1985년 이후 1986년 상반기까지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1986년 하반기부터 국제금리 하락과 換率절상으로 내외실효금리차가 확대되면서 原油를 제외한 품목의 延支給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6년 7월이후 3차례에 걸쳐 延支給수입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을 축소하는 등 규제조치를 강화한 결과, 1985년중 46.2%에 달하던 전체수입에 대한 延支給수입의 비중은 1986년에는 43.7%, 1987년 1-4분기에는 45.3%로 대체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선적서류 인수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延支給수입은*수입업자가 해외은행 또는 해외수출업자로부터 신용을 공여받는 일종의 외상거래로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신용장을 발급하여 수입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期限附 신용장(Usance L/C)방식과 은행의 신용장없이 이루어지는 無信用狀 인수인도(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방식 등 두가지 방식이 있다.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延支給수입은 일정기간 동안 수입대금 지급이 유예될 뿐만 아니라, 특히 국내금리가 국제금리보다 높을 때는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II. 최근의 延支給 수입동향과 주요 규제조치의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延支給수입이 總輸入(외환결제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4년에 약 50%에 달하였으나, 1985년에는 46.2%, 1986년 상반기에는 42.8%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1985년 들어 延支給수입 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당시 원貨의 對美 달러환율이 연평균 8% 상승함으로써 해외차입의 실효금리가 국내은행 차입금리를 상회한 데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86년 상반기중에 延支給수입비중이 하락한 것은 대부분 연지급방식으로 수입되고 있는 原油수입이 감소한 데에 크게 기인하였다.

그러나 원유를 제외한 품목의 延支給수입은 국제금리가 하락한 1986년 상반기부터 증가세로 반전된 후 원화가 절상되기 시작한 하반기부터는 가속적으로 증가할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해외부담 통화증발 대책의 일환으로 하반기초부터 延支給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즉 7월 10일에는 原油를 제외한 품목의 延支給수입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한 데 이어, 8월 21일에는 표준항해일수가 10일 이하인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延支給수입기간을 다시 30일로 단축하고, 내수용수입의 연지급수입대상을 실행관세율 30% 이하 품목에서 20% 이하 품목으로 축소하였다.

그리고 1987년 1월 1일부터 원유의 연지급수입기간을

註 : * 延支給수입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무역신용을 포함. 장기무역신용의 경우 대상품목이 原縮 등 재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품목에 국한되고 있어 그 비중이 매우 낮음.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였으며, 2월 13일에는 원유의 연지급수입기간을 다시 60일로 단축하여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내수용 연지급수입 대상품목을 실행관세율 10% 이하 품목으로 재조정하였다. 특히 2월 13일의 조치에서는 수출용수입에 대해서도 내수용수입과 마찬가지로 실행관세율 10% 이하 품목만 연지급방식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1986년 하반기와 1987년 1·4분기중 총수입에 대한 연지급수입의 비율은 각각 44.5%와 45.3%로 1986년 상반기 수준을 상회하였지만, 1985년의 46.2%보다는 낮아졌다.

〈表 - 1〉 延支給수입에 대한 규제조치의 내용

	규 제	내 용
	延支給기간	延支給수입 대상품목
1983. 5	• 180일→150일(단, 原油는 180일)	• 내수용의 경우 실행관세율 30% 이하 품목 • 수출용原資材의 경우 제한 없음.
1983. 12	• 150일→120일(原油: 180일→120일)	
1984. 7. 30	• 非原油: 120일→90일	
1986. 7. 10	• 非原油: 90일→60일 • 原油: 120일→90일(1987. 1. 1 실시)	
1986. 8. 21	• 표준항해일수 10일 이하 지역으로 부터의 수입: 60일→30일	• 내수용의 경우 실행관세율 30% 이하 품목→20% 이하 품목 • 수출용 원자재의 경우 제한없음.
1987. 2. 13	• 原油: 90일→60일(4. 1 실시)	• 내수용 수입의 경우 실행관세율 20% 이하 품목→10% 이하 품목(단, 표준항해일수 10일 이하 지역은 실행관세율 5% 이하) • 수출용수입의 대상품목도 내수용수입과 동일하게 조정

〈表 - 2〉 延支給輸入 비중 추이

(單位: 백만달러, %)

	1984	1985	1986			1987
			연 간	상 반 기	하 반 기	1 / 4
1. 一覽拂	12,027.7 (5.6) 〈50.3〉	12,869.1 (7.0) 〈53.8〉	14,498.7 (12.6) 〈56.3〉	7,094.9 (17.3) 〈57.2〉	7,403.8 (8.5) 〈55.5〉	3,952.0 (16.1) 〈54.7〉
2. 延支給	11,874.3 (10.7) 〈49.7〉	11,055.3 (-6.9) 〈46.2〉	11,246.3 (1.7) 〈43.7〉	5,309.2 (-9.4) 〈42.8〉	5,937.1 (14.3) 〈44.5〉	3,271.3 (28.3) 〈45.3〉
(유 전 스)	11,465.0 (9.6) 〈48.0〉	10,592.1 (-7.6) 〈44.3〉	10,764.5 (1.6) 〈41.8〉	5,055.9 (-10.1) 〈40.8〉	5,708.6 (14.9) 〈42.8〉	3,136.7 (28.4) 〈43.4〉
(D/A)	409.3 (54.0) 〈1.7〉	463.2 (13.2) 〈1.9〉	481.8 (4.0) 〈1.9〉	253.3 (5.6) 〈2.0〉	228.5 (2.3) 〈1.7〉	134.6 (26.3) 〈1.9〉
總輸入	23,902.0 (8.0) 〈100.0〉	23,924.4 (0.1) 〈100.0〉	25,745.0 (7.6) 〈100.0〉	12,404.1 (4.2) 〈100.0〉	13,340.9 (11.0) 〈100.0〉	7,223.3 (21.3) 〈100.0〉

〈註〉 () 내는 전년동기대비증감률
< > 내는 총수입(外換決濟基準)에서 차지하는 비중

Ⅲ. 품목별 延支給 수입

1986년중 전체 延支給수입을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나누어 보면, 내수용이 65%, 수출용이 35%를 각각 점하고 있는데, 1985년에 비해 내수용수입은 14.1% 감소한 반면, 수출용수입은 53.7% 증가하였다.

1986년중 내수용수입이 감소한 것은 주로 原油수입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原油를 제외한 내수용수입은 12.6%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수출용수입은 1986년 하반기부터 전년동기대비 9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를 보였

는데, 이처럼 수출용수입이 非原油 내수용수입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1986년 하반기 이후 수출이 급신장한 데다가 그동안 정부의 연지급수입 대상품목 축소조치가 내수용수입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용 연지급수입도 금년 2월 13일 대상품목이 내수용과 마찬가지로 실행 관세율 10% 이하 품목으로 축소되면서 3월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86년중 연지급수입의 구성을 상품류별로 보면, 원자재가 77%로 주종을 이루었으며, 그밖에 자본재가 14%, 소비재가 9%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품목 분포는 외환

〈表 - 3〉 用途別 延支給輸入 내역

(單位 : 백만달러, %)

	1985	1986			1987 1 / 4
		연 간	상 반 기	하 반 기	
資 本 財	1,107.7 (0.3)	1,541.7 (39.2)	646.3 (10.7)	895.4 (70.9)	424.6 (67.7)
(내 수 용)	749.5 (-2.5)	712.8 (-4.9)	366.8 (-6.9)	346.0 (-2.7)	117.9 (-22.8)
(수 출 용)	358.2 (6.7)	828.9 (131.4)	279.5 (47.0)	549.4 (226.8)	306.7 (205.2)
原 資 材	9,127.9 (-7.5)	8,681.4 (-4.9)	4,184.3 (-13.7)	4,497.1 (5.1)	2,571.7 (24.2)
(내 수 용)	6,973.7 (-8.1)	5,687.9 (-18.4)	2,963.3 (-20.7)	2,724.6 (-15.8)	1,513.9 (-1.8)
(수 출 용)	2,154.8 (-5.5)	2,993.5 (38.9)	1,221.0 (9.9)	1,772.5 (69.8)	1,057.8 (99.7)
〈非原油原資材〉	4,607.1 (-7.4)	6,117.4 (32.8)	2,725.0 (16.4)	3,392.4 (59.5)	1,882.1 (58.7)
(내 수 용)	3,148.9 (-4.0)	3,647.2 (15.8)	1,785.7 (14.6)	1,861.5 (28.3)	997.3 (22.1)
(수 출 용)	1,458.2 (-14.0)	2,470.2 (69.4)	939.3 (20.1)	1,530.9 (126.5)	884.8 (139.6)
消 費 財	819.6 (-9.1)	1,023.3 (24.9)	478.7 (10.9)	544.6 (40.3)	275.1 (21.8)
(내 수 용)	752.0 (-8.8)	875.0 (16.4)	424.3 (6.2)	450.7 (27.9)	238.1 (13.8)
(수 출 용)	67.6 (-12.7)	148.3 (119.4)	54.4 (70.5)	93.9 (163.0)	37.0 (122.9)
計	11,055.3 (-6.9)	11,246.3 (1.7)	5,309.2 (-9.4)	5,937.1 (14.3)	3,271.3 (28.3)
(내 수 용)	8,474.6 (-7.5)	7,275.7 (-14.1)	3,754.4 (-17.1)	3,521.3 (-10.7)	1,869.7 (-1.8)
(수 출 용)	2,580.6 (-4.9)	3,970.7 (53.7)	1,554.9 (16.7)	2,415.8 (93.6)	1,401.6 (116.7)

〈註〉 () 内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관리규정상 연지급수입대상이 원자재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5년과 비교해 보면 原油수입감소를 반영하여 原資材수입의 비중이 낮아졌는데, 이러한 추세는 1987년 1·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資本財의 연지급수입을 품목별로 보면 電氣·電子製品이 수출용을 중심으로 1986년 하반기에 156.9% 증가한데 이

어 1987년 1·4분기에도 106.3%의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기계류도 1986년 하반기의 17.8% 증가에서 1987년 1·4분기에는 40.7%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原油를 제외한 原資材中에서는 철강, 유기화합물 등 기초소재의 연지급수입이 1986년 하반기이후 10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국내공급이 부족했던

〈表 - 4〉 품목별 延支給輸入 내역

(單位: 백만달러, %)

	1985	1986			1987
		연간	상반기	하반기	1/4
資本財	1,107.7 (0.3)	1,541.7 (39.2)	646.3 (10.7)	895.4 (70.9)	424.6 (67.7)
(기계류)	453.0 (17.8)	516.5 (14.0)	237.2 (9.8)	279.3 (17.8)	147.7 (40.7)
(전기전자)	453.7 (4.8)	835.6 (84.2)	321.6 (26.8)	514.0 (156.9)	240.6 (106.3)
(自動車部品)	74.2 (-18.3)	77.2 (4.0)	26.9 (-31.9)	50.3 (45.0)	24.6 (151.0)
原資材	9,127.9 (-7.5)	8,681.4 (-4.9)	4,184.3 (-13.7)	4,497.1 (5.1)	2,571.7 (24.2)
〈非原油原資材〉	4,607.1 (-7.4)	6,117.4 (32.8)	2,725.0 (16.4)	3,392.4 (59.5)	1,882.1 (58.7)
(原木)	407.4 (-13.5)	429.3 (5.4)	183.3 (-14.3)	246.0 (27.1)	102.5 (36.5)
(섬유류)	516.7 (-16.6)	563.5 (9.1)	242.8 (-14.9)	320.7 (38.5)	193.4 (68.8)
(金屬鑛)	369.9 (-7.3)	569.5 (54.0)	266.3 (22.7)	303.2 (98.3)	201.0 (48.1)
(原油)	4,520.8 (-7.6)	2,564.0 (-43.3)	1,459.3 (-41.8)	1,104.7 (-48.7)	689.6 (-22.0)
(有機化合物)	426.5 (-4.6)	753.2 (76.6)	347.5 (53.3)	405.7 (103.1)	241.8 (102.9)
(鐵鋼)	430.1 (-18.5)	656.4 (52.6)	229.4 (-1.8)	427.0 (117.3)	233.5 (159.2)
消費財	819.6 (-9.1)	1,023.3 (24.9)	478.7 (10.9)	544.6 (40.3)	275.1 (21.8)
(곡물)	587.6 (-4.9)	631.3 (7.4)	318.3 (5.0)	313.0 (10.1)	180.9 (11.3)
(원당)	67.9 (-26.5)	107.8 (58.8)	31.9 (-19.6)	75.9 (169.1)	30.9 (111.6)
(科學機器)	66.6 (-4.9)	104.9 (57.5)	53.9 (59.5)	51.0 (55.5)	16.5 (-257)
計	11,055.3 (-6.9)	11,246.3 (1.7)	5,309.2 (-9.4)	5,937.1 (14.3)	3,271.3 (28.3)

〈註〉 ()内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섬유원자재도 1986년 하반기에 38.5%, 1987년 1·4분기에 68.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소비재 수입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곡물수입이 도입가 하락 등으로 1986년에 7.4%, 1987년 1·4분

기에 11.3%의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인 반면, 원당 수입은 1986년 하반기 이후 100%를 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 (주간내외경제 1319호)

□ 산유국단신 □

北海油田 최근동향

● 1986년의 생산현황

1986년의 英國 및 노르웨이領 北海에서의 원유생산량은 低油價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가경향을 보였다.

英國에서는 6월에 브렌트油田 등 2개油田에서 補修工事が 실시된데다가, 헤자油田의 사고까지 겹쳐 同月の 생산량은 220만b/d로 감소되었다. 또한 11월에는 플롯타 파이프라인에서 漏油사고가 일어나 5개油田의 생산이 중단되는등 예기치 못한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작년 평균생산량은 255만 b/d로 최고를 기록하였다.

한편 노르웨이에서는 파업으로 인해 4월의 생산량이 30만b/d로 떨어지는 최악의 사태를 보였다. 그러나 그후 급격한 회복세를 보였는데, 9월부터는 1989년에 조업을 예정하고 있는 오제베르그油田에서 1.5~2.5만b/d의 테스트생산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1월에는 우라油田이 조업을 개시, 시초에 3만b/d였던 생산량이 서서히 증가하였다. 이들 2개油田의 생산으로 인해 11월의 생산량은 처음으로 100만b/d가 넘어 101.8만b/d가 되었으며 그후에도 동수준의 생산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 평균생산량은 87만b/d로 최고기록을 세웠다.

英領北海 기존油田의 개발비를 포함한 생산코스트는, 1980년 以前에 조업을 개시한油田이 9 \$/B, '80년 이후에는 18 \$/B이라고 한다.

노르웨이領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노르웨이 생산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Statfjord油田의 코스트가 5.4달러이고 조업중인 10개油田 평균은 4.3달러이다. 노르웨이의 原油生産은 大油田이 90%를 차지하고 있어서 中·小油田이 많은 英國보다도 코스트面에서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

● 금년의 생산전망

英國에서는 금년 3월에 크라이디油田이 당초의 예정을 6개월 앞당겨 생산을 개시했으며 금년 중반에는 5만b/d의 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또한 바르모랄油田에서도 지난 3월부터 2만b/d의 테스트 생산이 시작되었으며 5월부터 3.5만b/d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금년 英領 北海의 생산량은 기존油田의 생산능력 감퇴로 인해 신규 2개油田의 조업개시에도 불구하고 감소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英國과 대조적이다. 노르웨이에서는 금년 1월에 매장량 10억배럴의 갈팍스油田의 Phase I이 완성되어 현재 5만b/d를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1월의 생산량은 109만b/d가 됨으로써 기록을 갱신한 바 있다.

금년 7월에는 에코피스크油田에서 海底沈下로 인해 플랫폼 撤去工事が 실시됨으로써 同油田은 28일간 생산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생산감소는 480만 배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갈팍스油田이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또한 기존油田의 생산능력이 높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금년 생산량은 증가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노르웨이정부가 OPEC을 支持해서 7.5%의 협조減産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기로 결정한 점이다. 減産은 에코피스크油田을 제외한 全油田의 생산계획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생산계획량은 확실하지 않으나 약 8만b/d의 減産이 예상된다.

減産을 개시한 2월의 생산량은 103만b/d로서 前月比 5.5% 줄어들었다. 노르웨이의 협조減産의 전도는 불투명하지만 減産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조減産이 연기되지 않고 6월에 끝나게 되면 7월부터 생산증가가 예상된다.